

## 자기소개서 : 한국정보과학회 2019년도 차기회장 입후보

1. 소속 및 성명 : 건국대학교 김두현
2. 자기 소개(1면 제한)

존경하는 한국정보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두현 교수입니다. 선거라는 대사를 앞에 두고 무척 긴장도 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학업 및 연구 경력)**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계산기공학과(현, 컴퓨터공학과)를 1985년에 졸업하고, 1987년에 KAIST에서 인공지능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3년에 KAIST에서 실시간 분산 멀티미디어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당기간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한의진단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공동연구 수행 차 SRI Int'l(구, 스탠포드연구소)에 객원연구원으로 2년을 근무하며 선진 연구체계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를 밑바탕으로 리눅스 기반의 셋탑박스에 영상회의, 영상메세지 등 멀티미디어 협동작업 솔루션을 개발하여 임베딩하는 데에 몰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경험은 2004년에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ITRC 등 다수의 사업책임자 역임, 정부 프로젝트 기획, 건국대 정보통신처 처장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 **(학회 활동 경력)** 우리 한국정보과학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Lisp의 한글화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면서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KAIST 인공지능연구실 석사과정 학생으로 우리 학회의 인공지능연구회(현,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설립에 실무자로도 참여했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건국대 부임 이후에 iTIP, SWCS 등 본 학회의 각종 행사에 조직위원 및 프로그램 위원장 등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홍진표 회장님(25대) 재임 시 국방소프트웨어 연구회 설립위원장과 초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SW정책연구회의 위원장을 맡아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김명준 회장님(27대, 2012년)을 도와 총무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학회운영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 **(대외활동 및 수상 경력)** 대표적인 국제 활동으로 한중일 공개소스SW활성화포럼의 인력양성분과 분과장을 역임하며 한중일 간의 공개소스SW 모델 커리큘럼을 공동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공개소스SW활성화포럼 특별공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기반SW.컴퓨팅 분야 CP(현, PM과 유사)를 역임하며 정부 R&D의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며 공공업무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체의 복합적 조직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힌 바 있습니다. CP를 역임하며 수십 건의 정부 R&D를 기획하고 론칭한 경험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SW 스타랩”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고 10개의 알토란 같은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대학연구실을 선정하여 지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07),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2010)에 이어 2016년 4월 “정보통신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도전과 약속)** 저의 경력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니 한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통해 학회, 대학, 연구소, 국제 활동의 다양한 면면들을 직접 경험하였고, SW분야 정부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며 우리나라 정보과학 분야 산업계의 애환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점으로 폭넓은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박하지만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기에 제가 차기회장(35대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 내외부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청취하고 조율하며 학회를 주무대로 학-연-산-정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도약에 혼신을 힘을 쏟아 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췌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출마소견서 : 한국정보과학회 2019년도 차기회장 입후보

1. 소속 및 성명 : 건국대학교 김두현
2. 출마 소견(1면 제한)

- **(학회에 대한 인식)** 우리 학회는 1973년 3월 3일 설립 이후 33대의 회장을 거치며, 45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 39,000여명의 일반회원을 보유하고 6개의 소사이어티와 14개의 연구회, 7개 지부 등 방대한 조직을 갖춘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보과학분야 최고이자 최대의 학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학회 현실 인식)** 그러나, 최근들어 젊은 회원의 감소, 분과 자율성에 대한 이견, 정보올림피아드 불협화음 등 다양한 이슈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회원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조율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 학회 본연의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와 고유 위상을 재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학회로 재도약 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 **추진 방향**
  - **(플랫폼화 지향)** 소사이어티/연구회 중심의 자율성 확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회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부활동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규모 학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문간 융합 장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학문간 교류 및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인트 컨퍼런스와 융합관련 연구회 보완 및 신설 등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젊은인재 활동 촉진)** 학계 뿐만아니라 산업계와 연구소 등에 있는 석박사급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회비감면 등 회원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KCC/KSC/ITIP/SWCS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 소주제별 셀 미팅을 강화하여 학회내 친구맺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산학연을 아우르는 젊은 인재들의 활동 무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과 환류체계 정비)** 지부 행사를 포함 각종 행사시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상시 추진하고, 이사회에 소사이어티/연구회/위원회의 활동주체가 직접 참여토록 하여 이를 환류체계의 고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학술용역 확대)** 우수국제컨퍼런스 목록 현행화, 정보올림피아드 개최, 취업분포 조사 및 커리큘럼 개선 연구, 오픈소스SW 정책 연구, 정보과학분야 대학 평가지표 개선 연구 등을 중장기적 연구 용역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화)** 소사이어티 중심의 국제학술활동을 지향함과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CCF(중국), IPSJ(일본)과의 한중일 학회 간 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우리 학회가 글로벌화 속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리딩)** 학회 원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망 높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가칭)정보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정보과학 분야의 오피니언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기회장으로 당선시 위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하여 회장 임기 시 우리 한국정보과학회가 명품 학회로서 회원들에게 생동감과 자부심을 선사하는 학회로 변모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